



광주문화예술명예의전당 건립을 위해 광주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건립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문화예술인 명예의 전당 독립 건물 입주 문화산실 역할 할까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화예술명예의전당'(가칭)이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독립된 건물에 들어설 전망이다. 조례가 생기면 시 예산 지원이 가능해져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예산 마련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오를 예술인을 뽑는 과정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문화재단 정책 포럼...조례 제정으로 시 지원 '주목' 대상자 선정 형평성 논란·건립 반대 목소리도 여전

◇조례 제정 작업 활발=광주문화재단은 28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문화예술명예의전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광주건축가협회 남승진 회장, 지역문화교류효남재단 김원중 연구실장,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 광주시립미술관 윤익 학예연구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의 핵심은 애초 광주시 남구 구동의 광주문화재단 건물 1층에 조성하기로 했던 명예의전당을 독립 건물에 조성하는 방안과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안이었다.

조오섭 의원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예술인을 선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독립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제정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의 간담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용역 등 시급=명예전당 조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광주시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술인 선정을 위한 기준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산과 공정성 논란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재단은 애초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고, 광주시 남구 구동 일대를 예술 공간으로 꾸밀 사업을 3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했다. 이 모든 예산을 기금을 모아 추진하려고 해 '현실성 없는 사업이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례 제정을 통한 예산 지원' 방안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제시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 광주시 회계에 관련 연구용역 예산이 반영돼야 빨라

2~3년 후 명예의 전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게 된다. 충분한 자료 조사가 이뤄져야 명예의전당 조성을 위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전히 예산은 문제다. 재단은 현재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예산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조례 제정에 따른 광주시의 예산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광주시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 있고, 충분한 아카이브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건립 반대 목소리도 여전=문화예술명예의전당의 건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재단이 최근 일반시민과 예술인 10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조성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사람은 13.3%에 그쳤다. 그렇다(31.5%)고 대답한 사람들을 포함하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44.8%에 머물렀다.

명예의전당 건립의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또 광주시의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명예의전당 건립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칫 명예의전당이 필요성 없는 사업에 적은 예산을 쪼개야 하는 '계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국·독일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쇼팽과 리스트



이봉기

31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한국과 독일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쇼팽과 리스트.'

'한·독 피아니스트 듀오 콘서트' 공연이 오는 3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목요상설 무대', '5·18상설 공연-애꾸눈 광대' 등 기획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준 관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마음으로 마련한 무대다.

1부에서는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가 쇼팽의 '발라드 2번 F장조 OP. 38', '녹턴 2번 DB장조 OP. 27', '소나타 2번 Bb단조'를 연주하고, 2부

에서는 이봉기씨가 리스트가 편곡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와 가곡 '물 위에서 노래함', '물레 감는 그레첸', 리스트의 '사람의 꿈', '라 캄파넬라'를 연주한다.

전남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이씨는 현재 내장산국제음악제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음악상을 수상했다.

독일 브레멘 출신으로 쾰른 국립음악대학과 줄리아드음대에서 수학한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는 현재 중국 후난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062-670-7941, 7945.

/김미연기자 mekim@



에른스트 놀팅 하우프

국립광주박물관·나주박물관 여름방학 프로그램 '풍성'

광주, 한지 만들기 무료체험

나주, 전통문화·유물이야기



국립광주박물관 한지 만들기 체험.

국립광주박물관과 국립나주박물관이 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8월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박물관 체험학습실에서 '여름! 박물관 이야기'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가족 같은 종이, 좀처럼 지는 주머니'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한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조선종이'라고도 불리는 한지는 딱나무나 삼지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만든다. 우리 문화에서 활용되는 한지의 쓰임을 배우고 전통 한지 기법 중 좀처럼 지는 주머니를 익히게 된다. 또 좀처럼 지는 주머니 다양한 생활용품 등을 제작해보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매회 40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문의 062-570-7053.

국립나주박물관은 8월4일부터 13일까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마한시대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나주의 전통공예

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박물관 속 유물 이야기'와 '전통문화 이야기' 등 2개 주제로 운영된다.

'박물관 속 유물이야기'는 박물관 대표 유물인 금동관(국보 295호)과 바다에서 건져 올린 청자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보

는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 이야기'에서는 나주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중 한 명인 소반장(중요 무형문화재 99호) 김춘식씨와 소반과 나주 납땀 부채를 직접 만들어보게 된다. 소반 만들기(3만 원)를 제외한 프로그램은 무료다. 문의 061-330-782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콘텐츠 창업보육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31일까지...수강료 무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창업보육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8월6일부터 9월 23일까지 모두 22차례(120시간)에 걸쳐 광주콘텐츠창업보육센터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문화콘텐츠 분야 비즈니스 모델 계획, 문화콘텐츠 환경변화 등에 대한 이해와 관리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 창업에 필요한 마인드, 창업 시 필

요한 조직구성, 마케팅, 재무회계, 계약 법률 등 공통교육과 문화콘텐츠 분야별 분과교육 등을 운영한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창업을 원하는 수료자는 문화콘텐츠 기획창업스튜디오 운영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문의 062-385-380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전시회



전국 예술꿈나무들의 큰잔치,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인 호남예술제 60주년을 맞아 준비한 전시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최근 10여년간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최고상 수상작 전시 호남예술제 출신, 작가, 심사위원 등 후원작가 작품 전시

2015. 8.13(목)~8.22(토) 오전10시 ~ 오후5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1, 2전시실

주최 | 광주일보사, 아시아문화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